

景福宮 香遠亭의 造成時期와 醉香橋의 原形

남호현* · 김태민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Corresponding Author : mitscoshi@naver.com

국문초록

경복궁의 후원에 위치한 향원정과 취향교는 고종 연간의 관련 사료와 조선 후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몇몇 도면에 의지하여 연구되고 있었다. 현재의 취향교는 한국전쟁을 거치며 전소된 것을 종전 후 임시적으로 재건한 것이기 때문에 형태를 비롯하여 재건 위치도 정확한 고증을 거친 것이 아니다. 구한말~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사진과 이를 묘사한 그림엽서 따위가 일부 남아있지만 촬영 주체나 시기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어떤 사진이 취향교의 원모습을 담은 것인지 판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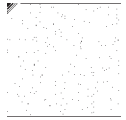
2017년 취향교 복원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조사를 통해 취향교의 원위치와 교각 주춧돌의 형태가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취향교의 변화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최초의 취향교는 상판이 약한 아치를 그리는 3렬의 교각열을 가진 형태였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교각열이 늘어난 평교형태로 변화한 것이 밝혀졌다.

또한 향원지 내 가도(假島)의 성토층에 대한 AMS연대측정을 통해 향원정이 임란 이후에 조성되었음이 판정되어 기존에 제기되던 '조선 전기 취로정 전신설'은 근거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발굴조사 및 사료검토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취향교와 향원정의 조성 시기는 조선 후기 건청궁의 건립연대와 평행할 가능성이 높다.

* 본 논문은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서울지역 도성유적 학술조사 연구」의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작성되었음.

주제어 경복궁, 향원정, 취향교, 조선 왕조, AMS연대

투고일자 2018. 09. 29 ● 심사일자 2018. 10. 29 ● 게재확정일자 2018. 11. 13



I. 머리말

도성은 국가단계에 도달한 정치체의 중심취락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도성의 핵심시설은 최고지배자의 치소인 궁(宮)이다. 최고의 정치 엘리트가 거주했던 궁궐에는 당연히 당대의 문화와 사상의 본질이 투영된 건축행위가 배풀어졌으며 한국 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을 위시한 동북아시아의 주요 국가에서도 그 나라의 궁궐에 대해서는 건축사·미술사·문헌사에 걸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경북궁은 조선 왕조의 정궁(正宮)으로 창덕궁, 경희궁, 경운궁(덕수궁)과 함께 소위 4대궁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주지하듯 조선왕조는 유교 이념에 기반하여 통치되던 국가였고 당연히 왕실의 생활이 이루어졌던 궁궐은 유교원리가 반영되어 주거공간, 통치행위, 의례가 진행되던 공간이 배치되었다. 기본적으로 궁궐 내 공간은 왕이 국내·외의 공식적 행사를 진행하는 정전과 신하와 정사를 의논하던 편전, 왕이 거주하던 침전, 이 세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이 영역들 주변으로 후궁전과 기타 궐내 각사들을 배치시켰다.

중국이나 일본의 궁궐들이 그러하듯 경북궁도『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에 기록된 사상과 배치구법이 각 전각들의 배치원리에 반영되어 있다. 전조후침(前朝後寢)과 삼문삼조(三門三朝)의 원리가 그것인데 왕이 정치를 하는 조정을 궁궐의 앞에 두고 그 뒤에 거처인 침전을 배치하고, 궁궐을 3개의 영역으로 나눠 각 영역에 3개의 문을 둔다는 것

이다. 3개의 영역은 내조(內朝)(연조燕朝), 치조(治朝), 외조(外朝)를 뜻하는데 간단히 말해 왕의 침전과 왕실의 생활 공간인 연조는 치조와 외조보다 궁궐의 안쪽에 위치한다는 개념이다(남호현 2016:17).² 왕과 왕비가 기거하던 침전의 배후에는 왕이 휴식하고 소요하던 후원, 다시말해 원림(苑林)을 조성하였는데 경북궁은 아미산(峨眉山) 뒤로 펼쳐지는 향원지(香遠池)와 녹산(鹿山)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경북궁 원림에는 커다란 연못인 향원지(香遠池)가 위치하며 향원지의 중심에는 인공적인 섬(이하 가도假島로 지칭)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위로 육각형의 정자 1기와 정자로 진입하는 다리가 걸쳐져 있다. 이들은 각각 '향원정(香遠亭)'과 '취향교(醉香橋)'로 명명되어 있으며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대상이기도 하다.³

향원지는 북서쪽에 '열상진원(洑上眞源)'으로 명명된 석조 입수구가 존재하는데 이곳이 공식적인 향원지의 수원이다.⁴ 이곳에서 발원하는 물이 향원지를 거쳐 경회루까지 공급되지만 지금까지의 경북궁 조사결과로 미루어 볼 때, 향원지를 포함하여 북쪽의 건청궁, 남쪽의 함화당·집경당 지역은 기본적으로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인다.⁵ 이 지역은 지속적으로 지하수가 용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연못에 대한 급수는 수원인 보이는 '열상진원'에 크게 의존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향원지의 바닥은 북동쪽이 가장 높고 남서쪽으로 점점 낮아지는 모습(문화재청 2007)을 보이고 있으며 취향교의 위치는 건청궁과의 관계 뿐 아니라 향원지 바닥의 지형 특성을 감안한 시공용이성도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 일반적으로 궁장(宮牆)으로 두른 왕의 치소를 지칭한다. 고대 중국의 황제 치소는 궁장을 두르고 그 외곽에 다시 황성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일반주민들의 거주지는 이 황성 바깥으로 배치되었다. 반면에 조선시대의 궁궐은 관서들이 위치하는 영역에 별도의 황성을 축조하지 않고, 궁장만을 둘렀다. 이하 본문에서는 궁궐로 표기하도록 한다.

2 김동욱(2001:85~92)은 삼문삼조설에 대한 개념이 『주례』 자체에는 없고 주례를 해석한 후대 학자들에 의해 비롯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경북궁의 배치에 사상적 원리로 영향을 주었다는 설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3 '향원(香遠)'은 '멀리 향기를 퍼뜨린다'는 의미로 북송대 학자 주돈(1017~1073)이 지은 '애련설(愛蓮說)'에서 따왔다고 전해진다.

4 경북궁 창건 시에도 존재했다고 하는 의견이 있지만 현재의 석조시설이 조성된 것은 고종대이며 이와 관련한 명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문화재청 2013).

5 함화·집경당 발굴조사에서는 조사지역내에서 지속적으로 지하수가 용출되어 배수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조사단의 전언이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향원정은 섬세하고 화려한 외형을 자랑하는 반면, 골조 등을 구성하는 부재가 소형부재들로 축조되어 다른 건물에 비해 그 내구성이 취약하다고 평가된다. 실제로 일제강점기에서 지금까지 수회의 보강공사가 진행되었으며 현재는 내구성 보강을 위해 해체 복원공사가 준비 중에 있다(문화재청 2013).

현재의 취향교는 한국전쟁을 거치며 훼손된 것을 별다른 고증없이 임시적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위치와 다리 외관이 원형과 전혀 다르다는 지적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향교의 원형복원과 향원정 주변 정비에 위한 기초학술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2017년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에 취향교 및 교대 추정지를 대상으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결과, 취향교의 원위치 및 원형 검토에 필요한 학술자료와 향원정의 초축연대 파악이 가능한 연대측정 자료가 확보되어 향후 복원연구에 있어 큰 획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실시된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원정의 초축연대와 취향교의 변화 과정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II. 향원정과 취향교에 대한 기존의 이해

향원정과 취향교는 경복궁의 원림, 다시말해 후원에 자리잡고 있으며 경복궁의 중축선상에 위치한다. 향원정(보물 제1759호)은 북쪽으로는 건청궁을 남쪽으로는 함화당·집경당을 면하고 있다. 향원정은『고종실록(高宗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궁궐지(宮闕志)』, 『경복궁배치도(景福宮配置圖)』, 『북궐도형(北闕圖形)』, 『조선고적도보(朝鮮

표 1. 경복궁 후원의 전각과 관련한 주요기록

사료명	권수	년도	일자	기사내용	
조선 왕조 실록	태조실록 8권	1395	9월 29일	새 대궐 후원에 연못을 팠다.	
	세조실록 3권	1456	3월 5일	취로정을 낙성함에 제조 금천군 등에게 잔치를 내리다.	
	세조실록 16권	1459	4월 22일	경회루에 나아가 관사하고 취로정에 나아가 관가하다.	
	세종실록 94권	1443	11월 25일	서현정에 나아가 활쏘기를 구경하다.	
	문종실록 4권	1450	11월 17일	서현정에 나아가 활쏘기를 구경하다.	
	예종실록 5권	1468	4월 13일	서현정에 나아가 무예를 시험하다.	
	연산군일기 39권	1501	12월 7일	서현정에서 무사들의 활쏘기를 구경하다.	
	명종실록 28권	1562	5월 15일	취로정에 나아가 입시한 사신들에게 글을 지어 바치게 하다.	
			1592		임진왜란을 거치며 전소
	고종실록 10권	1873	8월 19일	좌의정 강로가 건청궁 공사비를 절약할 것을 청하다.	
승정원 일기	136책	1887	9월 18일	건청궁에서 일차유생의 전강 비교를 거행하고 과차할 때 행 도승지 민영준 등이 입시하였다. (전강시 향원정을 명체에 올림)	
신증 동국여지승람	1,2권 (경도)	1530		경복궁 후원에 서현정, 취로정, 관저전, 충순당이 있다.	
		1953		6.25 때 파괴, 현 위치에 재건	

古蹟圖譜』등에서 기록이 확인되는데 이를 신뢰한다면 향원정의 낙성시점이 1873년이므로 접근시설인 취향교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표 1). 그런데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의 기록에 대궐 후원에 못을 파고 ‘취로정(翠露亭)’을 만들었다는 기록도 확인되기 때문에 ‘향원정’의 전신을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취로정’이나 ‘서현정’으로 보는 선언적인 주장도 많았다.⁶ 하지만 이 건물들의 연관성을 확정지어 볼 수 있는 실증자료가 부재하여 이러한 의견은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현재 조선 전기의 자료로 추정⁷되고 있는 도면들을 참고할 경우, 취로정 뿐만이 아니라 아미산 뒤편의 연지를 중심으로 그 주변

6 경복궁과 관련되어 발간된 서적이나 해설서 등에는 향원정의 전신을 취로정이나 서현정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연구나 논저는 부재한 상황이다.
7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궐도형』, 『경복궁배치도』의 명확한 제작배경도 밝혀진 바 없지만, 임란 이전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들은 제작주체, 목적, 시점 등과 관련한 정보가 더 불명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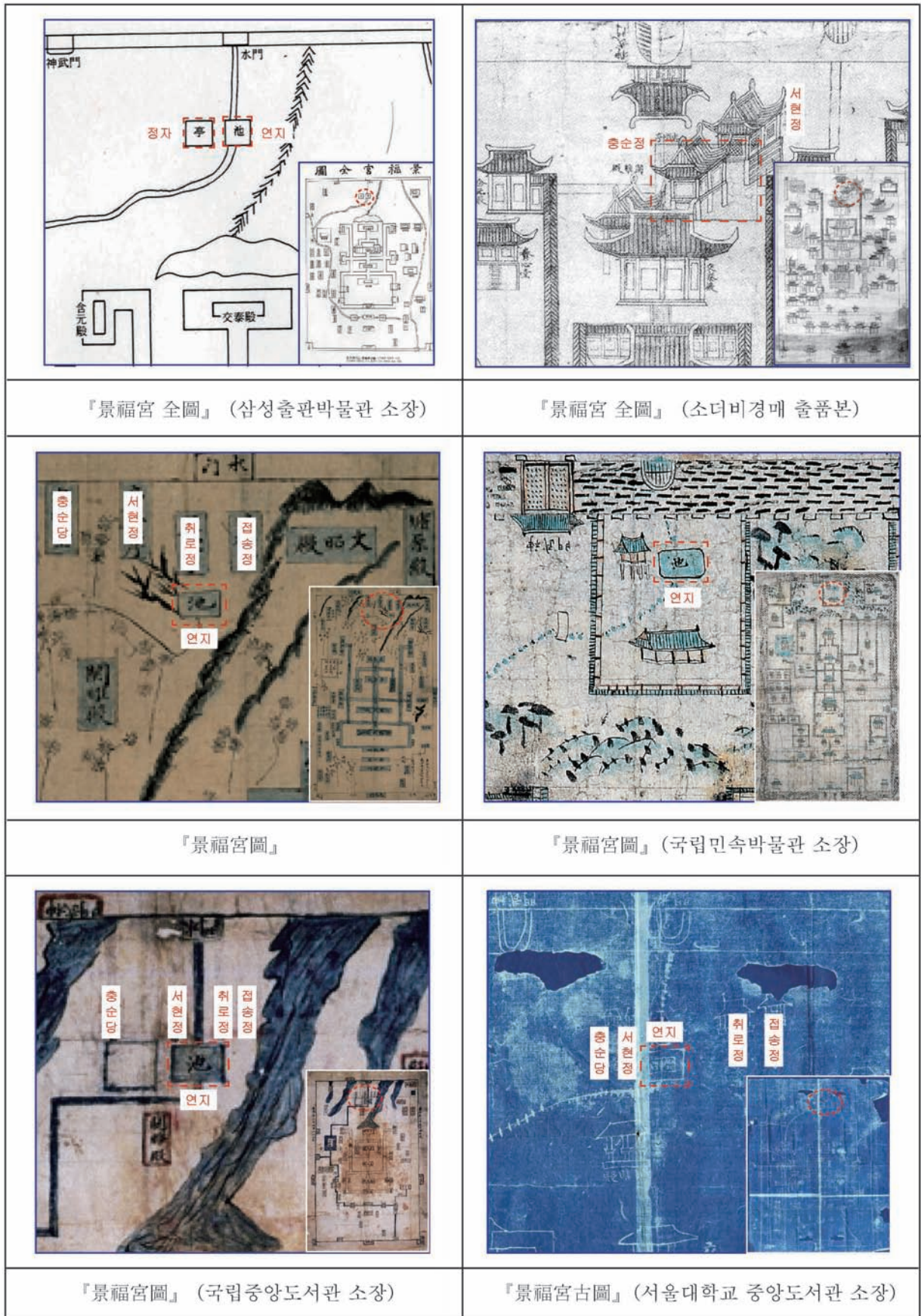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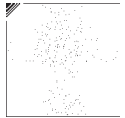


그림 1. 임란 이전 고도古圖에서의 경북궁 후원영역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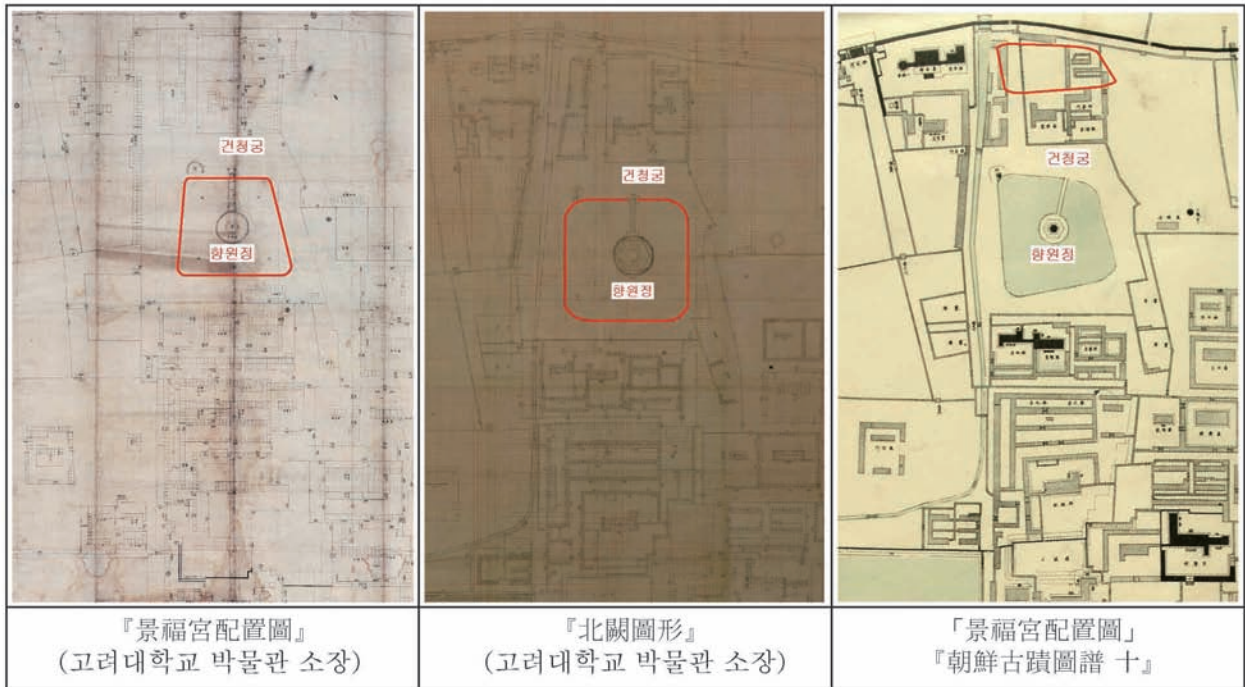


그림 2. 조선 후기 도설에서의 경복궁 후원영역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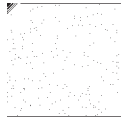
에 위치했던 서현정(序賢亭), 관저전(關雎亭), 충순당(忠順堂)(충순정)⁸, 접송정(接松亭)까지도 향원정과의 개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향원정과 취향교에 대한 기록은 『궁궐지』나 조선 후기의 도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취로정이나 서현정과 같은 경복궁 중건 이전에 후원에 존재하였던 정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종대 이전의 도형(圖形)이나 도설(圖說)⁹이 필요하다. 창건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들은 현전하지 않지만, 18세기 영·정조대에 제작된 도설¹⁰들이 일부 전해지고 있어 이를 통해 임란 이전의 경복궁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도설들은 건물이나 지형에 대한 묘사가 간략화 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못과 정자가 표기되어 있어도 그 명칭을 생

략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명칭이 표기된 도면들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면 먼저 소더비 한국미술 경매전에 출품되어 알려진 『경복궁도(景福宮圖)』의 경우, 사각형 연못에 서현정과 충순정이 표현되어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경복궁도』의 경우에는 충순당과 서현정, 취로정, 접송정이 서쪽부터 표기가 되어 있으며, 취로정 남편으로 작은 사각형의 연못이 있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경복궁고도(景福宮古圖)』에는 사각형의 연못을 사이에 두고 서편에는 충순당과 서현정, 동편에는 취로정과 접송정이 그려져 있는데 연못 내부에 섬이 존재하는 것처럼 묘사된 부분은 다른 도면들과 다른 점이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그림 1). 향원정과 취향교와 관련된 공식적 기

8 소더비 출품 『경복궁전도』에 한하여 ‘충순정’이라는 표기가 확인된다.

9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에 界畵기법으로 그려진 도면을 지칭하며 일반적으로는 間數를 중심으로 그려진 경우는 도형으로, 도형에 설명까지 부가된 경우는 도설로 구분한다.

10 당시의 경복궁 도면들에는 정해친잠비가 표기되어 있어 이를 통해 현전하는 도면들이 영조 43년(1767, 丁亥)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비정되고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5). 반면 정해친잠비가 단순히 친잠비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1770년 이전 모습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한동수 2014).



록은 1930년 발간된 『조선고적도보』 10권의 기록이 마지막이며 해방 후 한국전쟁을 거치며 전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의 모습은 종전 후에 재건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향원정과 관련한 공식기록을 참고할 때, 낙성시점은 1873년으로 비정할 수 있고 당시 고종이 거주하던 건청궁에서 향원정으로 건너가는 방향에 취향교가 놓여있어 정황상, 현재의 향원정과 취향교는 건청궁이 만들어진 조선 후기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정황증거 이외에 향원정과 취향교의 실제 축조시기를 가늠할 직접증거가 부재하여 건물복원이나 정비에 있어 불요한 논란이 존재하는 것이다. 실제조사를 통해 정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초축연대를 제시해 둘 필요가 있다.

Ⅲ. 향원정의 조성시기와 취향교의 원형

전술했듯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취로정이나 서현정이 향원정의 전신일 것으로 비정되고 있지만 태조시기 후원에 조성된 연못이 향원지일 것이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직접증거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경북궁의 후원영역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와도 연관되는 문제인데 『북궐도형』에 표기된 후원영역, 다시말해 현재의 청와대까지 범위를 넓혀 볼 경우, 향원정의 초축 연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의 자료 중에는 향원정과 취향교가 촬영된 사진이 일부 남아있는데 향원정은 지붕상부의 활주가 2가지 형태로 취향교의 경우, 다리의 형태가 4가지 이상이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문제는 사진촬영시점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향원정과 취향교의 본래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 ‘어떻게 변형되어 왔는지’에 대한 실증

이 어려웠던 것이다. 심지어 현재의 취향교는 한국전쟁 이후¹¹, 경북궁을 정비·보수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고증없이 재건된 것이라 외형은 물론이거니와 복원 위치도 과거 기록과 부합하지 않고 있다. 본 장에서는 발굴조사와 사진자료 검토를 토대로 확인한 향원정의 조성시기와 취향교의 변화과정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한다.¹²

1. 향원정의 조성시기

발굴조사에서는 취향교 추정지에 대한 조사와 함께 향원정이 위치한 향원지 내 가도(假島)에 대한 트랜치 조사도 이루어졌다. 조사는 현재의 표토층 아래로 2.5m 아래까지 수직 하강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인위적으로 형성시킨 성토층을 확인하였다. 성토층은 적갈색의 사질점토와 회갈색의 점질토를 40cm 정도 두께로 번갈아가면서 시루떡 같이 쌓아올렸는데 조사단은 성토층에서 확인되는 회갈색의 점토와 회흑색의 사질점토를 환원작용에 노출되어 형성된 토양으로 판단하였다(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18). 정황 증거로 판단한다면 성토에 활용된 흙은 향원지를 조성하며 나온 Backdirt(굴광한 흙) 혹은 이미 존재했던 연못의 바닥을 준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활용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조사단은 트랜치 단면에서 관찰되는 성토양상에서 특별한 보강공사나 재성토 흔적이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가도를 구성하는 성토층이 단일공정을 통해 조성된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이 해석을 존중한다면, 향원정이 설치된 가도(假島)는 연못을 조성하면서 배출된 흙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쌓아올린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그림 3, 4).

지금까지 경북궁 내 건축물들의 조성연대를 판단하는 수단들은 남아있는 건물의 양식적 형태를 검토(문화재청 2013)한다거나 출토유물 분석 등을 통한 상대편년적

11 한국전쟁 종전 이후에도 얼마간은 향원정의 북쪽 방향에 취향교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문화재청 2013)

12 본고에서 사용한 취향교 관련 조사도면과 사진은 모두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2018)에서 발간한 「경북궁 - 취향교지 발굴조사보고서-」에서 인용하였으며 본문에서 별도 인용표기를 하지 않음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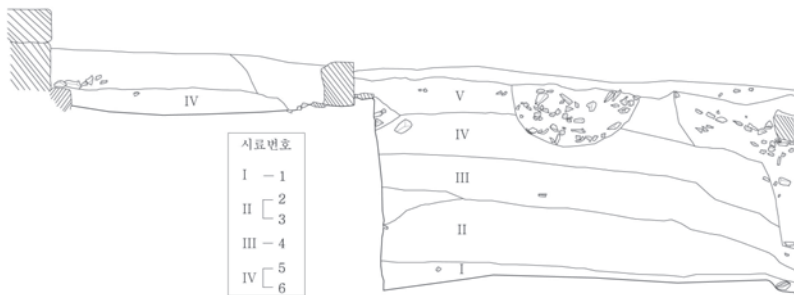


그림 3. 향원정 하부 성토층 내 시료채취 위치.



그림 4. 향원정 하부 성토층 양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문화재청 2013). 하지만 유적편년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경향을 고려한다면 경복궁도 관성적으로 적용시키던 상대연대 편년법에서 탈피해 유적 연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원지 가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성토층에서 수습한 목탄과 유기물에 대한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이 실시되었다(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18). 고고학 발굴현장에서는 출토 유물의 재질 및 연대의 상·하한 범위에 따라 다양한 절대연대측정법이 활용되는데 이 중 방사성탄소 연대측정(Radiocarbon agedating)은 방사성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한 여러 연대측정법 중 비교적 짧은 반감기로 인하여 고고학 및 지질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절대연대측정법이며, 목탄, 나무, 뼈, 패각, 생물체 및 생물체의 잔여물 등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AMS(Accelerator Mass Spectrometry) 연대측정은 아주 미세한 양의 유기체에 대해서도 정밀한 측정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C14연대측정은 모두 AMS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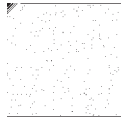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의 전제는 대기 중의 방사성탄소 농도가 일정해야 한다는 가정이 필수적이나 과거 Late Pleistocene에서 현재까지 대기 중의 방사성탄소양이 몇 번의 변화¹³를 겪어 왔기 때문에 시료로서 활용되는 연대

는 시료의 생명활동이 멈춘 Calendar Age와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보정곡선(Calibration Curve)을 이용해 보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정곡선이 활용되기 시작된 이래 지속적인 오차의 보정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보정곡선을 보이지 못하는 구간도 있다. 대표적으로 AD500년을 전후한 시기와 조선시대의 일부 구간 등이 그에 해당된다. 탄소연대 고원기(C14 Plateu Period)로 지칭되기도 하는 연대 구간인데 이러한 이유로 중·근세의 유적에 탄소연대측정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일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연대측정 방법이나 오차보정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고 편년과정에서 절대연대측정 결과가 요구되는 상황도 빈번하기 때문에 오용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불신을 하는 것을 올바른 연구태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하간에 성토층 수습 시료에 대한 AMS 연대측정을 통해 지층의 형성된 시기의 상한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데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성토층에 포함된 샘플의 연대보다 지층의 형성시기를 올려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향원정 하부 성토층에서는 총 6점의 시료가 채취되었으며 이 가운데 샘플오류가 발생한 1점을 제외하고 5점에 대한 AMS연대측정 결과가 도출되었다. 5점 가운데 3점

13 지구자기의 변화, 태양의 흑점활동, Suess효과, 핵실험 등을 원인으로 거론할 수 있다.



은 Conventional Age가 1800±30BP, 4350±30BP, 3990±30BP로 측정되었는데 연대측정과정에서 오류가 없는 발굴 현장에서도 유적의 대표연대를 상회하는 연대가 측정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적다고 판단된다.¹⁴ 향원정 가도의 조성연대와 연관시켜 볼 수 있는 것은 시료 1번과 5번의 연대이다. 시료 1번은 Conventional Age가 120±30BP, 시료 5번 170±30BP가 측정(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18)되었는데 두 성토층이 동일한 시점에 형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시료의 결합연대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림 5).¹⁵ 주목해 볼 부분은 두 시료의 결합연대의 확률분포가 대부분 1700년 이후의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채취된 샘플들의 생성 연대가 조선 후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따라서 샘플이 채취된 성토층의 연대도 조선 후기보다 올라가기 어렵다는 의미가 된다. AMS연대측정 결과를 신뢰한다면 적어도 향원정이 위치한 향원지 내 가도는 1700년 이후의 어느 시점에 조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임진왜란으로 인한 경북궁의 전소(1592년), 흥선대원군의 경북궁 중건(1865~1868년)

등의 사건으로 미루어 본다면 고종대 경북궁을 중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거나 경북궁 중건이 완료된 이후, 건청궁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함께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향원지 가도의 조성연대를 경북궁 중건기로 해석하는 것이 허락된다면 취로정을 향원정의 전신으로 보는 의견은 철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조선 전기 후원에 위치했던 전각들인 서현정, 관저전, 충순당도 향원정과의 개연성이 매우 희박해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다른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AMS연대측정 결과는 향원지 내의 가도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향원지 자체의 축조연대를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조선 전기의 궁궐 전경을 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몇몇 도면에는 아미산 뒤편으로 취로정이나 서현정, 관저전, 충순당이 묘사되어 있고 건물 전면으로 명명되지 않은 연못이 확인된다. 남아있는 도면들이 정확한 축척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묘사된 건물이나 연못의 위치 역시, 현재의 향원지의 위치와 비교된다. 물론 묘사된 연못의 규모가 협소하고 평면형태도 상이하므로 연못에 가도따위도 확인되지 않는 차이점도 있다. 만약 이 도면들에 표시된 연못이 향원지의 전신이라면 태조대 후원에 조성했던 연못을 경북궁 중건시에 보수·확장시키면서 연못 안에 새로이 가도를 만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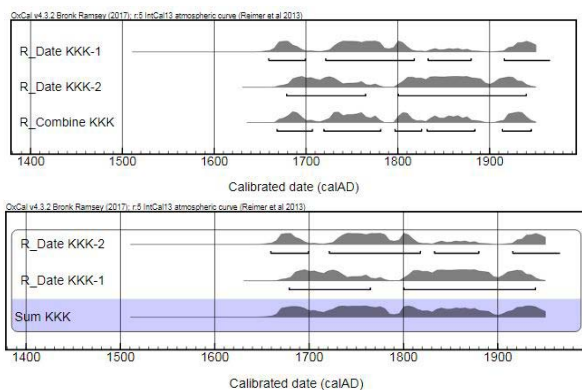


그림 5. 향원정 하부성토층 AMS 연대측정 결과와 결합연대.

2. 취향교의 원형

현 시점에서 취향교의 원배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조선 후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경복궁배치

14 AMS연대측정은 미국 Beta에 의해 이루어졌다. 산출값의 신뢰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pMC(Expected value)값이 알려진 3개의 표준시료를 취향교 목탄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전처리 한 후, AMS 연대측정하여 산출된 pMC를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채취시료의 QA(Quality Assurance)리포트의 pMC값이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하므로 AMS연대측정 과정상에서의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5 Oxcal의 R_Combine와 Sum명령어를 사용하였다. 전자는 교정전의 연대값을 결합, 통계적인 결합연대를 표현하면서 확률값의 불확실성을 정의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으며 후자는 교정 연대의 개별분포를 합산함으로써 확률밀도 분포를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Sum명령어의 경우, 불확실한 통계적 근거에 바탕을 둔 방법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본 검토는 샘플 수가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확률분포구간에 대한 시각적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 두 가지 그래프를 함께 사용하였음을 부기해 둔다.



그림 6. 적심재활용 부재 양상.



그림 7. 적심 단면부.



그림 8. 목주 단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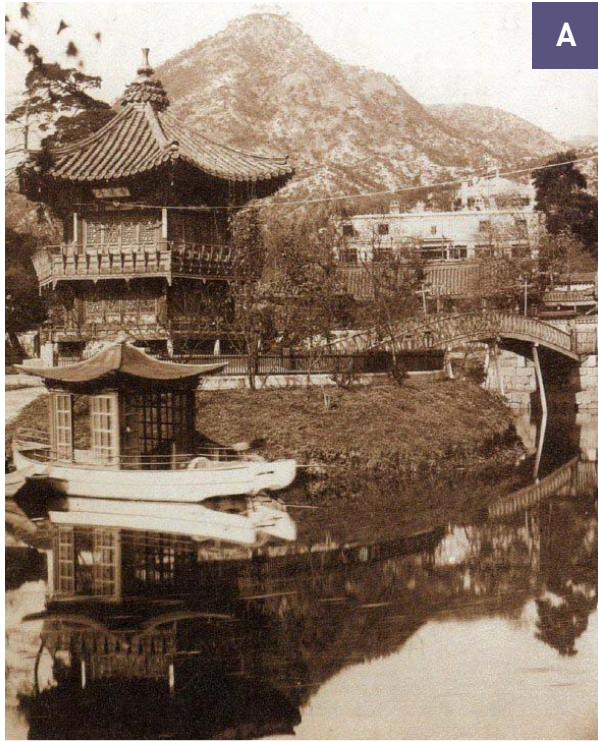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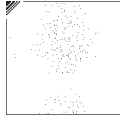


그림 9. 취향교 북편 교대 추정지 하부 암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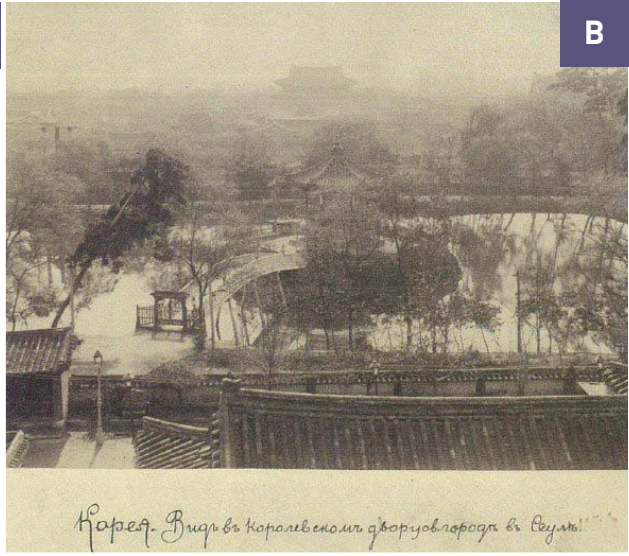
도(고려대박물관 소장)와 『북궐도형(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이 있다. 『경복궁배치도』를 『북궐도형』보다 약간 앞선 시기로 보는 견해(문화재청 2002; 이혜원 2008;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2013)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두 도면은 상이한 부분이 꽤나 존재하지만 취향교와 관련한 내용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두 자료에서는 모두 근정전 중심축과 연결되는 정북방향으로 취향교가 표시되어 있지만 『조선고적도보』, 『조선총독부 부지평면도』 등 근대적인 측량기법이 적용된 도면에는 취향교가 주요 전각들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3.5~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 2). 현전하는 문헌에는 현재의 위치와는 다르게 취향교가 건청궁과 연결되는 북쪽에 위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현재 남아있는 구한말의 사진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발굴조사 이전에는 향원정

북편에 남아있는 석축이 취향교의 교대로 여겨지고 있었으나 조사 결과, 후대에 다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석축 주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보도석이 취향교와 향원정을 연결하는 모양새로 확인되었는데 별다른 교란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미뤄 볼 때, 지금 남아있는 석축 역시, 원)취향교의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그림 11).

구한말의 자료 중에는 향원정 및 취향교가 촬영된 사진 혹은 사진을 도상으로 하여 묘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엽서들이 일부 남아있다(그림 10). 대체로 취향교 북서편에서 동편을 바라보며 촬영한 사진과 남서편에서 동편을 바라보고 촬영한 사진이 남아있는데 향원정과 취향교의 본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었다. 문제는 몇몇 사진을 제외하고는 각 사진들의 촬영시점을 특정할 수 없어 지금까지는 건물의 외형에 근거, 대략적인 추정을 해 오고 있었다. 사진에서 향원정은 지붕상부의 찰주가 2가지 형태로 취향교는 다리의 형태가 4가지 이상이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향원정의 찰주 형태를 근거로 다리상관이 약한 아치형태를 그리는 사진이 가장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지만 촬영 앵글 등의 문제로 다리발의 개수나 형태, 색상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또한 향원정 찰주의 형태가 동일한 사진들은 어떤 사진이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인지 나중의 것인지에 대해 파악하기 어려워 취향교의 변화는 몇 가지 추정에 근거하여 짐작되고 있었다. (그림 10)을 통해 설명한다면 촬영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A, B의 사진이 가장 이른 시기에 촬영되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며



A



B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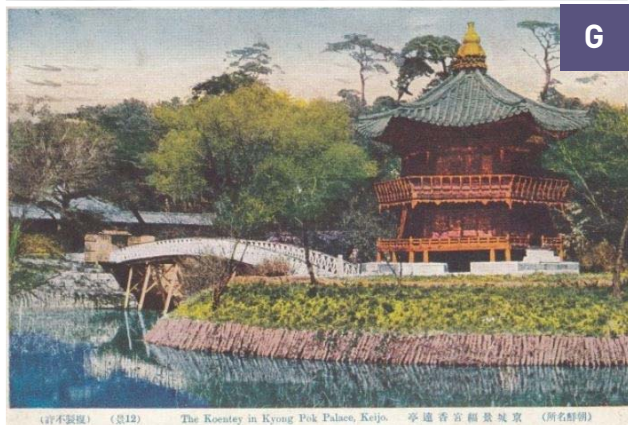
D



E



F



G

그림 10. 조선말~일제강점기 취향교 관련 사진자료(A: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도록 발췌, B: Arnold H의 편지, C: 조선고적도보 10권, D~G: 그림엽서(연대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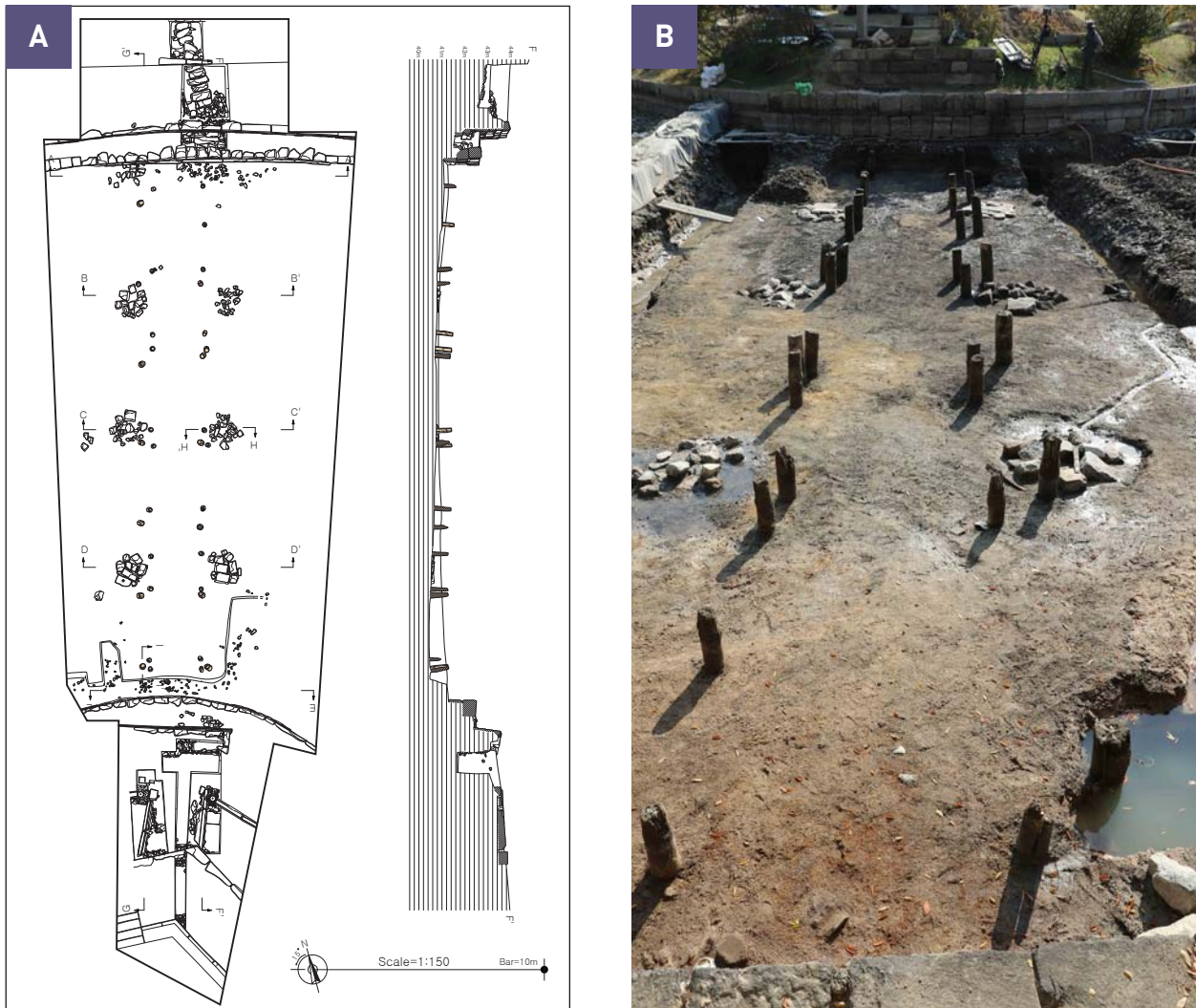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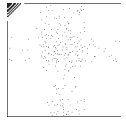
그림 11. 취향교지 교각 배치도 및 전경사진(A: 취향교지 교각 평·단면도, B: 취향교지 적심 및 목주열 전경).

D, E, G번 사진이 그 이후 단계, C, F번 사진이 가장 늦은 단계의 것이다.¹⁶ 취향교지 발굴조사를 통해 적심 3열과 목주 7열이 확인되었는데 목주는 적심보다 늦은 단계에 조성된 것이 층서관계에서 확인되어 취향교 교각의 변화과정에 대한 파악이 일정부분 가능하게 되었다. 먼저 적심은 경간 거리가 약 6m, 폭이 4.3m 정도로 조성되어 있으며 최초의 취향교는 다릿발 6개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국립강화문

화재연구소 2018). 적심은 둘레 약 1m 정도로 평면원형을 의도하고 조성하였는데 향원지의 바닥층을 굴광하고 돌을 채워넣은 형태이다. 적심에서는 주변의 석재들을 재활용한 모습도 관찰되고 있어서 다리의 조성이 이른 시기가 아닐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그림 6, 7).

목주들은 경간 거리가 1.5~3.5m, 너비는 2.5~2.8m 정도로 다소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조사단은 목주의

16 사진 1, 2번에서는 관문각이 공사, 혹은 완공된 모습(1888-1891)을 확인할 수 있으며 건청궁에 전기등이 설치(1887)된 모습도 관찰되고 있다. 관문각이 훼손된 시점(1901)을 감안하면 1890년대에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사진 4, 5, 7번에서는 향원정 찰주의 형태가 바뀌었고 취향교도 교각열의 개수도 변화된 것이 감지된다. 사진 3, 6번에서는 다리의 기본형태가 완전히 바뀐 것이 확인된다.








분포양상을 통해 최소한 2개 이상의 평면계획이 중첩되어 있을 가능성을 상정하였다. 사진에서 확인되는 교각의 형태를 고려할 때 조사단의 해석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그림 11). 목주는 굴광없이 나무기둥을 원지반에 박아 넣어 조성하였는데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전통적인 공법보다는 일본식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일부 목주의 경우 적심을 조성하기 위해 땅을 굴광한 범위의 안쪽에 설치된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적심보다 늦은 단계의 것임이 확인된다(그림 6). 목주는 끝부분을 뾰족하게 다듬은 형태인데 표피가 그대로 남아있어 공을 들여 가공한 목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약 1.2~1.4m 정도 높이로 남아있는데 일정하게 절단면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특정시점에 일괄적으로 훼손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그림 8). 발굴조사 결과를 기초로 시간성을 반영하는 속성을 분류, 이를 기준

으로 사진들을 순서배열할 경우, 취향교는 6개의 다리발을 가지고 교각상판이 약한 아치를 그리는 교각에서 여러개의 다리발을 가진 평교에 가까운 형태로 변화하였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표 2)¹⁷.

한편 취향교 북편교대 추정지에 대한 트렌치 조사과정에서 건청궁 조사(중앙문화재연구원 2003)에서 확인되었던 석조암거의 연장렬이 확인되었다(사진 9). 현재 북편교대와 관련된 시설이 남아있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정황적으로 판단할 때, 교대 아래로 암거를 조성하고 교대를 완성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석조암거는 건청궁과 관련된 배수시설이기 때문에 건청궁 건립을 위한 기초공사 단계에서 만들어졌을 것인데 이를 감안하면 교대의 축조가 건청궁 공사보다 앞설 수 없으므로 취향교가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표 2. 취향교의 변화단계

사진	교각열 개수		교각 형태		향원정 가도 호안마감		다리 난간		추정연대
	3개	5개 이상	아치형	평교	통나무	석축	유	무	
	○		○		○		○		상한연대 : 1873
		○	○		○		○		
		○		○	○			○	하한연대 : 1930
		○		○		○		○	추정연대 1930-1939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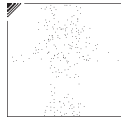
17 화가이자 인류학자였던 영국인 아놀드(Arnold H. Savage Landor/1865~1924)는 1890년 조선을 방문하고 작성한 『Corea or Cho-se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1895)에서 취향교를 반원형의 백색다리로 묘사하였다.

V. 맺음말

취향교지와 향원정 교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는 향원정 및 취향교 복원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에 대하여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레퍼런스를 제시하였다는 부분에서 평가할 만하다.

먼저 취로정을 포함하여 서현정, 관저전, 충순당 등 조선 전기의 기록에서 나타나는 후원 건물들은 현재의 향원정과 연결시켜 볼 여지가 축소되었다. 향원정 가도에 대한 AMS연대측정 결과는 적어도 가도가 조선 후기에 조성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때문에 향원정의 조성연대를 조선 전기까지 올려보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물론 AMS연대는 가도의 성토층에 대한 검토 결과이기 때문에 향원지 자체의 조성연대가 이보다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전하는 도형이나 도설들을 참고할 때, 그러할 여지는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¹⁸ 두 번째로 연못 바닥에 남아있던 목교의 적심을 발견한 것은 취향교의 원형을 검토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없던 元취향교의 다릿발 수와 다리 규모에 대한 검증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후대 목교의 주립법(柱立法)이 목주를 땅에 박아 넣는 일본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점, 다리의 형태와 규모는 계속 변화하였지만 元목교의 위치를 고수했다는 점, 복원교대가 건청궁의 배수시설보다 늦은 단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적복원 특히 건축물의 복원에 있어 축조 시기와 같은 건립배경에 대한 정확한 검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설계에 앞서 복원에 적용해야 하는 건축양식과 건축당시의 공법 등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향원정과 취향교를 올바르게 복원하는데 미약하게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18 향원지에 대한 전면 발굴을 통해 이 주변에 존재하던 조선 전기의 선형유구를 확인할 수 있다면 다른 관점의 접근도 가능하겠으나 연못 같은 Open site의 폐기 특성, 후대에 연못에 베풀어진 준설공사 등의 요소를 감안 시, 재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참고문헌

사료

- 『朝鮮王朝實錄』, 국사편찬위원회 국역본 DB
- 『新增東國輿地勝覽』, 민족문화추진회 국역본 DB
- 『宮闕志』,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 『北闕圖形』,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 『景福宮配置圖』,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 『景福宮全圖』, 삼성출판박물관 소장
- 『景福宮圖』,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都城圖』,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 『彰義門(壯洞八景帖中)』, 정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 『瀋川事實 舟橋指南』,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 『朝鮮總督府(景福宮)敷地平面圖』, 국가기록원 소장

보고서

- 문화재청, 2002, 『경복궁 광화문 및 기타권역 복원정비 기본계획 보고서』
- 문화재청, 2013, 『보물 제1761호 경북궁 향원정 정밀실측 보고서』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북궐도형』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景福宮 發掘調査報告書 3 - 咸和堂·緝敬堂 行閣址』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조선왕실 건축도면』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2018, 『경복궁 발굴조사보고서 - 취향교지-』
-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05, 『경복궁 녹산지역 발굴조사보고서』
-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2015, 『서울 2천년사 13: 조선시대 서울의 도시경관』
- 중앙문화재연구원, 2003, 『景福宮 건청궁 발굴조사보고서』, 문화재청

단행본

- 남호현, 2016, 『조선 궁궐의 주거공간』, 민속원
- 문화재청, 2007, 『景福宮 變遷史: 경북궁 변천과정 및 지형분석 학술조사 연구용역. 上, 下』, 문화재청

논문

- 김동욱, 2001, 「경복궁 건물배치의 '삼문삼조'설에 대한 의문」 『건축역사연구』 10호, 한국건축역사학회
- 박정해, 2013, 「경복궁의 입지환경에 대한 풍수적 논의와 해석」 『향토서울』 83호, 서울특별시 시사 편찬위원회
- 이해원, 2008, 『景福宮 중건 이후 殿閣構成의 변화-「경복궁배치도」와 「북궐도형」을 중심으로- 경기대박사학위논문』
- 한동수, 2014,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경북궁도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4호, 한국건축역사학회

A Study on the Original Form of the Chwihyanggyo Bridge and the Creation of the Hyangwonjeong in Gyeongbokgung Palace

Nam, Ho Hyun* · Kim, Tae Min

Gangwh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Corresponding Author : mitscoshi@naver.com

Abstract

The Hyangwonjeong and Chwihyanggyo located in the back garden of Gyeongbokgung Palace have mainly been investigated by referring to historical records about the reign of King Gojong and various drawings thought to have been made in the late Joseon period. Because the current Chwihyanggyo was rebuilt temporarily after being burned to the ground during the Korean War, its form and the location of its reconstruction are not grounded on any accurate historical investigation. Although there are some photos of the Chwihyanggyo that were taken between the end of the Joseon period and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re is no information about the photographer or when they were taken, and it is hard to see which photos show the original Chwihyanggyo Bridge with them.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hich is currently promoting the restoration of the Chwihyanggyo, has recognized this problem and initiated research on the matter. In 2017, an excavation survey successfully identified the original location of the Chwihyanggyo, as well as that of Hyangwonji Gado (假島), and the shape of the first foundation stone in the pier. With these findings it was possible to infer the ways in which the Chwihyanggyo has changed over the years. Moreover, by measuring the AMS (Accelerator Mass Spectrometer) of the samples collected in the mounding layer of the Gado where the Hyangwonjeong is located, it was discovered that the Hyangwonjeong was constructed sometime after the Imjin waeran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which means that the theory that 'the late Joseon Hyangwonjeong was not the former early Joseon Chwirojeong' is groundless. Judging by the materials found to date, we can reasonably assume that the Chwihyanggyo and Hyangwonjeong must have been built around the same time that Geoncheonggung Palace was founded in the late Joseon period.

Keywords Gyeongbokgung, Hyangwonjeong, Chwihyanggyo, AMS, Chosun dynasty

Received 2018. 09. 29 • **Revised** 2018. 10. 29 • **Accepted** 2018. 11. 13

